의료인문테마스쿨
Newsletter



대구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DAEGU CATHOLIC UNIVERSITY SCHOOL OF MEDICINE

Contents

1. 건강한 의대생활 ····· 1

2. 당신과 나 사이에
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 3

3. 몸과 마음 힐링, Tea Therapy ····· 5

4. 향기로운 소꿉놀이 ····· 7

5. 내 커피, 내가 볶고 내가 내린다 ····· 9

6. 페어플레이 ····· 12

7. 자연재해 ····· 14

8. 시각장애인 음악가들 ····· 17
("신은 내게 눈 대신 목소리를 줬죠")

9. 와인과 만남 ····· 19

10. 골린이들의 골프여행 ····· 21

11. 큐레이터 되기 ····· 24
: Be my own Curator

12. 게임과 현대사회의 이해 ····· 26

건강한 의대생활

담당 교수: 곽상규(의학통계학)
참여 학생: 김병권, 박채은, 황지현



좋은 의사가 되기 위해서는 환자를 올바르게 치료하기 위한 지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의대생들은 입학부터 엄청난 양의 공부를 소화해야 한다. 대부분이 입학과 동시에 이미 의사가 된 듯한 착각에 빠져 찬란한 미래를 꿈꾸지만, 현실은 하루하루 수업내용을 따라가기도 벅찬 생활을 보내게 된다. 이외에도 매주 치르는 시험의 압박, 유급에 대한 두려움, 코로나19로 등으로 인해 몸과 정신건강 모두 피폐해져 가고 있었다. 이런 시기에 이번 의료인문테마스쿨 활동을 통해 건강하게 의대생활을 보내기 위한 방법을 고민하고 실천해보는 유익한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

건강한 의대생활을 보내기 위한 방법을 논의하는 중에 가장 먼저 운동하기를 생각했다. 평소에도 운동이 부족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조금만 계단을 올라가도 숨이차고, 걷기조차 힘들었다. 운동의 필요성을 느끼고, 헬스장을 등록하여 주 3~4회 정도는 꼭 나가려고 노력했다. 보통은 유산소 운동을 30~40분 정도 했고, 근력운동을 할 때는 상체, 하체 또는 전신운동을 선택하여 30~40분 정도 더 했다. 운동을 못 할 때는 짧은 거리라도 걸으려고 노력하여 하루 평균 300~600칼로리 정도를 소모하려고 했다.

운동의 효과에 대해 소개하자면,

- 체중감량에 효과적이다.
- 체력을 길러주고 신체 각 부위의 주요 근육을 발달시켜 준다.
- 스트레스가 해소되고 정신적인 안정감을 준다.
- 혈액 순환을 좋아지게 하여 면역을 향상시키고, 피로에 대한 내성 능력을 향상시킨다.

다음 주제는 정신건강이었다. 4년간 학교를 다니면서 마음의 여유가 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사소한 것에도 감사함을 느끼는 나를 찾기 힘들어졌고, 불평불만만 가득 내놓는 모습에 놀란 적도 있었다. 우리는 마음을 돌보기 위한 방법으로 명상을 선택했다. 교수님께 건강한 의대생활을 위해 명상을 하고 싶다고 말했더니 도움이 되는 음악과 영상을 추천해주셨다. 지금도, 자기 전 10분 정도 명상 관련 유튜브 영상을 재생하고, 하루에 감사했던 일들을 생각해보며 쉬어가는 시간을 가지고 있다.

이번 의료인문테마스쿨 활동에서 가장 기억나는 활동은 다 함께 '닥터스트레인지 2' 영화를 본 것이다. 이 활동이 가장 행복했던 이유는 일반 영화관이 아니라 샤롯데 프리미엄 영화관을 처음 가보았기 때문이다. 영화관 내부에는 샤롯데 전용 라운지가 있었고, 웰컴 드링크가 있어서 신기하고 기분이 좋았다. 영화관 내부

좌석은 다리를 쭉 뻗고 편안하게 영화를 볼 수 있었고, 관람객이 거의 없어 영화관 하나를 통째로 빌린 듯한 느낌을 받아 좋았던 것 같다. 영화를 관람한 후에는 근처 삼겹살집을 갔는데, 처음 가보는 곳이었지만 그곳 역시 너무 만족하였으며, 교수님께 감사한 마음이 들었다.

이번 의료인문테마스쿨 수업은 다방면으로 유익한 시간이었다. 반복되는 일상으로 힘들고 지친 본과 생활에 학업에서 잠시 벗어나 자신의 건강에 대해서 되돌아보고,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웃으면서 힐링하는 즐거운 시간이었다.

당신과 나 사이에 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담당 교수: 김성규(신장내과학)
참여 학생: 고경림, 김상범, 박성수



의대생들은 학기중에 일주일에 한 번씩 시험을 치고, 타과생들은 꿈도 못 꿀 만큼의 양을 매주 외우고 다시 까먹는 것을 반복한다. 그 톱니바퀴 속에서, 우리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 많은 것을 놓치고 지나가기도 한다. 김성규 교수님과 함께하는 '당신과 나 사이에 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에서는 그렇게 놓친 우리의 빈 부분을 채우는 시간을 가졌다. 활동할 때는 각자 원하는 만큼 시집을 읽어오고 그 중, 가장 인상 깊었던 시와 그에 대한 감상을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다. 여러 시를 접하고 나서, 우리는 각자 활동 중 가장 인상 깊었던 시 한 편씩을 골라 사람들에게 소개해보기로 했다.

박성수

이전에는 시에 대해 별로 흥미가 없어 수능 이후로 시를 딱히 감상한 기억이 없었다. 하지만 이번에 시를 읽어보면서 작가가 어떤 의도로 이런저런 표현을 했는지 떠올리는 것도 재미가 있었고, 가끔 재치있는 표현을 읽을 때면 신선하기도 했다. 나는 이병률 시인의 '무엇을 제일로'라는 시가 가장 인상 깊었다. 화자는 사랑하는 이를 잃은 것처럼 보인다. 그러면서 '제일로 무엇 하나 남겨 가질 것인가'에 대해 스스로에게 묻는다. 그에 대해 답하는 과정에서 어떤 자극적인 단어가 담겨있지 않음에도 화자의 슬픈 감정이 절절하게 느껴지게 했다. 학기 중에는 공부, 시험, 잠 이렇게 세 가지 일이 대부분을 차지해 머릿속에 나만의 생각을 할 겨를이 별로 없었다. 그래서 가끔은 내가 공부만 하는 기계인가 싶은 생각도 들었다. 하지만 의료인문테마스쿨에서 하루 30분이라도 시를 읽으며 골똘히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니 머릿속에 생기가 불어 넣어진 것만 같았다.

김상범

나는 이따금 정답을 찾기 위해 공부를 한다는 느낌이 들 때가 있다. 병을 잘 찾고 정확한 치료 방법을 제시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미래에 나를 상상해봤을 때 '문제를 풀 듯 환자를 대하면 어쩌나' 하는 걱정이 많이 들었다. 그러던 와중에 의료인문테마스쿨을 하면서 많은 시를 읽고, 여러 가지 대화를 하면서 사람을 대하는 법에 대하여 조금씩 알아가는 느낌이 들었다. 나는 박준 시인의 '장마'라는 시가 가장 인상깊었다. 시에서 화자는 사랑하는 사람에게 '갱도에서 죽은 광부들의 이야기'로 답장을 적으려다 다 구겨버리고는 '이 글이 당신에게 닿을 때쯤이면 우리가 함께 장마를 볼 수도 있겠습니다'라고 시작하는 편지를 새로 적는다.

살아가다 보면 힘든 일들을 종종 겪곤 한다. 그리고 그러한 일들 때문에 '내가 조금만 더 노력했으면, 다르게 행동했으면 결과가 다르지 않았을까?'하고 후회한다. 하지만 이 시의 화자는 후회하기보다는
앞으로의 미래를 그린다. 과거의 일들 때문에 많이 힘들기도 했고, 분명 과거의 일들로부터 배워야 할 것들이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미래를 살아야 한다. 그렇기에 과거에 묶이지 않고 미래를 생각하는 화자의 모습을 보면서 나도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고경림

시집을 읽는다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인 것 같다. 나뿐만이 아니고 주변에서도 시집을 빌려서 읽는다는 사람은 거의 한 번도 보지 못했다. 나는 처음 의료인문테마스쿨 활동을 할 때 평소에 잘 접할 수 없는 새로운 활동을 위주로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있었는데, 그런 면에서 이번 시 감상 활동은 충분히 만족스러웠던 것 같다. 내가 인상 깊게 읽은 시는 나태주 시인의 '기도'이다. 시에서 화자는 자신이 힘들 때 자기보다 더 힘든 사람을 생각나게 해 달라는 내용의 기도를 한다. 이후 화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스스로에게 질문하고 스스로 답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기도한다. 나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 어디로 향해 가는가, 어떤 꿈을 꾸고 있는가. 나는 시의 마지막 부분에 와서야 화자의 고민이 평소 내가 하던 고민과 같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시의 내용이 다시 보였다. 기도를 통해 수동적인 것처럼 보였던 화자는 사실 능동적인 자세로 인생을 맞닥뜨릴 준비를 하고 있었고, 기도는 절실함을 나타내는 것이었다. 그저 흘러가는 대로 살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나는 내 인생에 이만큼 절실해 본 적이 있었는지 등 많은 생각을 할 수 있었다.

김성규(신장내과)

의대생 시절, 반복되는 일상과 뒤돌아서면 또다시 맞닥뜨리는 시험의 파도 속에서 허우적대던 때가 문득 생각난다. 뒤돌아 생각하면 우리는 너무 문제와 답가지 속에서 정답을 찾기 위한 노력만을 하지 않았나, 이성과 합리로만 세상과 인간을 해석하고자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나 실제 의료 현장에 발을 들이게 되면 환자와 의사, 보호자와 의사, 의사와 의사라는 인간관계로 묶여있고 합리와 이성으로만 이 관계가 유지되지 않으며 감성과 이해의 영역 또한 중요함을 느끼게 된다. 학문적으로 시를 어떻게 정의하느냐는 사실 국문학 전공이 아닌 우리가 정확히 기술하기는 어려우나 짧은 시 속에는 각자가 바라보는 관점과 느낌, 감정, 소회 등이 함축적으로 담겨있다는 사실은 안다. 길지 않은 시간이지만 정답 찾기에 매몰된 의대 생활에서 감성을 찾고 나 자신을 찾고 다른 사람의 시선을 느껴보고자 하는 것이 내가 의도하였던 수업의 방향이었다. 다행히도 잘 따라와 주었고 참여하는 세 사람이 각자가 느낀 점이 분명 있었으리라 믿는다. 삶에 있어 정답은 없다고 생각한다. 만 명의 사람이 있으면 개개인마다 다른 만 개의 결이 존재한다. 이 결은 서로 비슷할 수는 있어도 완전히 같을 확률은 굉장히 희박하다. 시를 읽고 그 사람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느껴보려 하여도 '나'는 그 사람이 될 수는 없다. 그러나 '나'만의 편협한 시각에서 벗어나 '나'를 둘러싼 인간과 세상에 대해 좀 더 확장된 관점을 가질 수도 있다. 참여한 세 사람 모두 한 학기 동안 수고했고 또 만납시다.

몸과 마음 힐링,
Tea Therapy

담당 교수: 오희진(의학교육학)
참여 학생: 김규범, 심수현, 이해석

1일차



이 날은 교수님과 첫 만남을 갖고 홍차에 대해 다양한 것을 배웠다. 티타임(Tea time) 이라는 단어의 의미, 홍차의 유래, 역사 그리고 여러 종류와 홍차를 타는 법을 배웠다. 홍차를 탈 때는 3g의 찻잎을 300ml의 뜨거운 물에 타서 3분간 우린다는 '3의 규칙'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3분과 차를 마시는 시간 동안 교수님과 차 외에도 다양한 주제에 대해 이야기를 듣고 나누며 티타임이 무엇인지 몸소 느꼈습니다. 또한, 홍차의 다양한 종류를 맛보며, 찻잎의 가공 과정에 따라 다양한 향과 맛이 날 수 있음이 신기했다. 러시안 카라반, 복숭아향 홍차 등 각자 좋아하는 홍차의 종류가 다른 것도 인상 깊었다. 마지막에는 교수님이 집에 가서도 시음해 볼 수 있도록 티백 형태로 된 여러 차를 주셔서 집에서도 티타임을 가질 수 있었다.

2일차



두 번째 만남에서는 녹차에 대해 배웠다. 녹차는 홍차와 달리 완전 끓는 물이 아니라 70℃ 정도의 물에 우리는 것이 제일 맛있다는 걸 배웠는데, 같은 잎에서 가공 과정만 달리한 것뿐인데도 차를 우리는 과정이 모두 상이하다는 점이 인상 깊었다. 녹차 또한 홍차와 마찬가지로 여러 종류가 있었는데, 개인적으로 튀긴 현미를 섞어 고소한 맛을 보이는 백차가 평소 마시던 녹차와는 다른 맛이지만 숭늉 같은 특유의 맛이 좋았다.

3일차




이날은 앞산에 있는 올가나스토리를 방문하여 보이차 수업을 받았다. 사진에 있는 3종류의 숙차와 생차를 마셔보았고, 그 차이점에 대해 자세히 배울 수 있었다. 우리가 평소 마시던 보이차는 주로 숙차였는데, 생차 또한 큰 거부감이 없이 편하게 마실 수 있었다. 또한, 우리 셋 모두 가장 좋아한 보이차의 종류가 달랐던 점이 신기했다. 그리고 잘 보존된 보이차 찻잎과 장인이 만든 도구의 가격이 저희의 상상을 뛰어넘었는데, 이를 통해 차의 세계가 얼마나 오래되었고 깊은지 알 수 있어 좋은 시간이었다.

4일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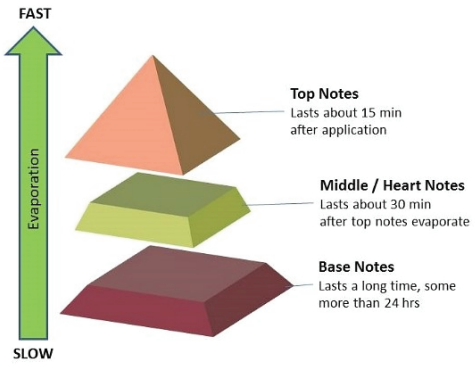


세 번째 만남에 피치 못한 사정으로 교수님과 차 수업을 함께하지 못했는데, 이 날은 앞산에 있는 다른 찻집인 운남차정에 교수님과 함께 방문했다. 차 수업을 받지는 않았지만, 지금까지 마셔봤던 말차, 보이차, 보이차를 이용한 밀크티 등 다양한 차를 맛보았다. 말차가 녹차 가루로 만든 차여서 더 부드러운 맛이 난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저번에 배운 보이차 마시는 법을 실제로 적용해서 마시니 풍미를 더욱 깊게 느낄 수 있었다. 또한, 귀여운 고양이가 두 마리나 있어 시각적 즐거움도 상당했다.

향기로운 소꿉놀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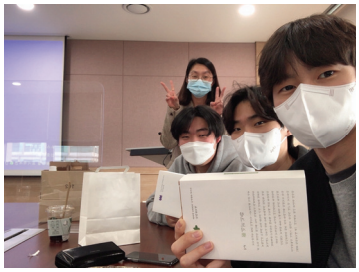
담당 교수: 류동희(예방의학)
참여 학생: 안성준, 이준혁, 전병채

1. 향수 만들기 (4/5)



첫날은 간단하게 OT를 진행한 후 향수 만들기를 해보았다. 향수를 만들기 전에 교수님께서 향수가 만들어지는 원리, 향수의 분류, 향이 변하는 과정 등을 상세히 설명해주셨다. 향수제조는 압착, 침출, 증류 등 정교한 과정이 필요하다. 향수는 크게 퍼퓸(perfume), 오드퍼퓸(Eau de Parfum), 오드뚜왈렛(Eau de Toilette), 오드코오롱(Eau de Cologne) 등으로 나뉘고 오드뚜왈렛이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향수이다. 향수는 탑노트(Top note), 미들노트(Middle note), 베이스노트(Base note) 순서로 향이 바뀐다. 탑노트는 5~15분 사이 향을 뿌린 직후의 향, 미들노트는 30분~1시간 사이의 향, 베이스노트는 2~3시간 후의 마지막 향을 말한다.

교수님께서 준비해주신 키트를 활용해 향수를 만들어보았다. 각자 원하는 향을 하나씩 고른 후 비율에 맞게 물, 오일, 에센스를 섞어서 향수를 만들었다. 처음 맡아보는 특이한 향이었지만 향이 나쁘지 않았다. 지금은 자취방에서 방향제로 쓰고 있고, 키트에 동봉된 우드볼도 유용하게 잘 쓰고 있다.



2. 수성못 나들이(5/11)



공부에 지친 우리를 위해 교수님께서 DD'SAP이라는 좋은 식당에 예약해주셨다. 우리는 피자와 파스타, 필라프를 먹으며 즐거운 이야기를 나눴다. 교수님께서는 이번 학기가 첫 수업이셨고, 학생들과 가까이에서 이야기할 기회가 많이 없으셨다고 하여 더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었다. 교수님께서는 학창시절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고, 우리는 교수님께 앞으로 맞딱뜨릴 상황에 대해 질문하면서 즐겁게 식사를 마쳤다. 식사가 끝난 후에는 근처 스타벅스에서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한 후에 수성못 반 바퀴라도 걸어보자는 생각으로 나갔다. 수성못에는 도심에서 들어볼 수 없는 자연의 소리로 가득했고, 시원하게 부는 바람을 맞으며 걸었다. 사람도 적어 여유로운 느낌을 받을 수 있었다. 이후 학교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떠다니는 오리배를 보며 우리는 다음에 꼭 연인과 함께 오기로 다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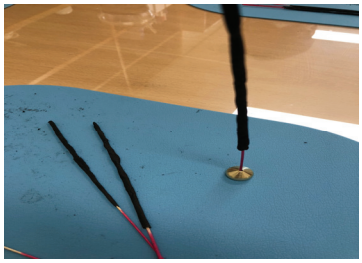


3.인센스 체험(5/17)



인센스 체험활동에서는 세계 각국의 인센스 향을 체험해보고, 우리가 직접 인센스 스틱을 만들어보았다. 여러 나라 중에서도 인도의 인센스 향이 가장 기억에 남았는데, 강렬하고 이국적인 향 덕분에 인도에 여행 온 듯한 기분이 들었다. 인센스 향을 맡는 것으로도 마음의 안정을 느낄 수 있었는데, 인센스 스틱을 만드는 과정에서도 마찬가지였다. 먼저 인센스 가루, 아로마 오일, 물을 종이컵에 붓고 잘 섞어주었다. 그러면 찰흙 반죽 같이 만들어지는데, 덩어리를 잘 반죽해 총 16등분 해주었다. 나누어진 반죽들은 대나무 스틱에 하나씩 말아주고 말리면 인센스 스틱이 완성된다.





처음엔 쉬울 것 같았지만 단순히 찰흙 덩어리를 스틱에 붙이는 것이 아닌, 일정한 간격으로 고르게 말아야 해서 상당한 집중력이 필요하였다. 조금만 성급하게 해도 반죽이 갈라지고, 울퉁불퉁해져 어렵기도 하였다. 하지만 다른 잡생각 없이 온전히 스틱을 만드는 것에만 집중하는 동안 마음의 안정과 여유를 느낄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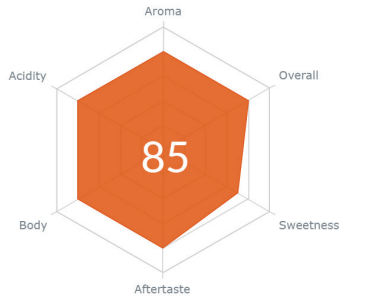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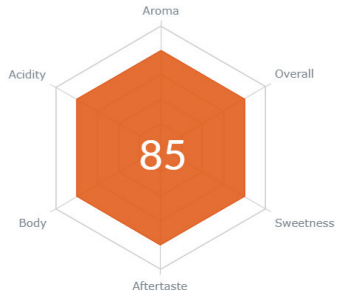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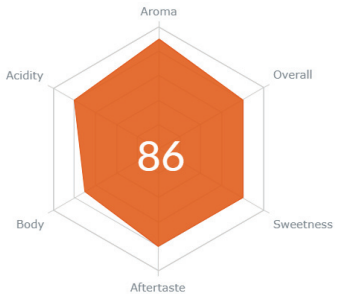
내 커피,
내가 볶고 내가 내린다

담당 교수: 박경민(생화학)
참여 학생: 고찬우, 김미연, 김지현

우리나라에서 커피는 1970년대 크림과 설탕을 일정 비율로 섞어 항상 같은 맛이 나는 믹스커피로 인기를 누렸다. 이때의 커피는 고된 노동 후에 빠르고 간편하게 마시며, 카페인과 당분을 공급하는 의미가 컸다. 그러나 1990년대에 들면서 경제가 더욱 발전함에 따라 더 높은 삶의 질을 추구하면서 이런 인스턴트커피는 달고 자극적인 식품으로 여겨진다. 동시에 우리나라에는 많은 커피 전문점이 들어오기 시작한다. 아늑한 실내공간에서 여유롭게 고급스러운 커피를 즐길 기회를 접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선호도는 인스턴트커피에서 원두커피로 옮겨가게 된다. 커피 시장이 급격히 커지고 소비자들의 원두커피에 대한 안목이 높아지면서 이제는 원하는 커피 본연의 맛을 찾아 개인이 직접 원두 선택하여 볶고 갈아 내려 먹을 수 있는 문화가 자리잡았다. 이는 개인적 기호를 중시하는 사회로 진입하고 있는 현재의 시대상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본 수업에서는 이러한 시대에 따른 커피 문화에 대해서 논의해보고 직접 생두를 선택하고 볶아 원두를 만들어보고 이를 내려보며 나에게 적합한 커피 맛과 향을 찾아보았다. 또한, 앞으로 만나게 될 환자들과 원활히 소통할 수 있는 수단의 하나로 커피에 대한 식견도 길러보고자 하였다.

로스팅한 원두 종류

과테말라 카날레스 워시드 SHB	콜롬비아 라 콜롬비아 워시드 수프리모	케냐 감마노 AA TOP
		
✓ 감귤, 밀크초콜릿, 코코넛, 헤이즐넛 ✓ 과일 산미	✓ 파인애플, 코코넛, 물엿, 우유 ✓ 은은한 산미	✓ 자몽, 홍차, 초콜릿, 배 ✓ 은은한 산미

로스팅 체험

소형 로스터기를 원적외선으로 미리 예열하고 볶음통의 온도계로 확인한 온도가 180℃가 되면 준비한 생두 500g을 볶음통 안에 투입한다. 투입된 생두는 회전하는 볶음통 안에서 가열되며 1분마다 통 안의 온도를 측정한다. 회전하면서 원두는 고르게 볶아지고 점차 진한 갈색으로 변하기 시작한다. 생두 투입 후 9~10분 정도가 되면 200℃에 도달하고 1차 크랙 소리가 들리기 시작한다. 이후 온도를 유지하고 2차 크랙 소리가 들리기 전에 로스팅을 끝내고 원두는 로스터기 아래편의 채반에 배출하여 내장된 쿨러를 작동하여 바람으로 빠르게 식힌다. 채반에서 덜 벗겨진 채프는 선풍기 바람에서 원두를 떨어뜨리면서 제거해 주었다. 볶음 정도가 같도록 덜 볶아진 밝은색의 원두는 골라내주고, 원두에서 이산화탄소가 빠져나가는 일주일 정도의 시간을 둔 뒤 갈아주면 된다.



핸드드립 해보기

직접 볶은 커피 원두를 내려보기로 했다. 수동 그라인더와 드리퍼, 서버, 종이필터, 계량스푼, 드립 포트만 있다면 집에서도 얼마든지 핸드드립 커피를 즐길 수 있다. 그라인더로 원두 약 20g(1인분)을 갈아내는데 원두 입자크기는 카페에서 에스프레소를 추출할 때의 크기보다는 커야 커피가 많이 쓰지 않다. 끓인 물을 드립 포트에 담아주고, 드리퍼에는 종이필터를 올리고 미리 뜨거운 물로 종이필터를 린싱한다. 린싱은 필터와 드리퍼를 밀착시켜주고 커피에서 종이 맛이 나지 않도록 하는 과정이다. 이후 서버 위에 드리퍼를 올리고 원두 가루를 필터에 담아준다. 커피 추출은 뜨거운 물(88~92℃)로 3번에 걸쳐 드립한다. 처음으로는 커피 가루가 젖을 정도의 물만 붓고 30초 정도 뜸을 들인다. 뜸들이기는 커피의 가스를 빼내고 수용성 성분을 녹여내어 커피 가루 사이로 물이 잘 내려갈 수 있는 상태를 만들어주는 중요한 과정이다. 두 번째로 중앙에서부터 나선형으로 3회 이상 원을 그리듯이 물을 부어 준다. 세 번째로는 커피 거품이 서버 밑으로 빠지기 전에 3차 추출을 시작한다. 총 추출량은 약 240mL, 추출 시간은 2분~2분 30초 정도이면 맛있는 핸드드립 커피를 만들어낼 수 있다.

카페 방문

1) 넘버더스타즈 대구 남구 현충로 54



앞산의 대형 커피숍이다. 핸드드립 커피가 메뉴에 있었지만 셀프로 내려야 해서 아메리카노를 주문했다. 널찍한 공간에서 대화를 나누기 좋은 카페였지만 커피가 묽은 감이 있어 맛과 향을 느끼기에 충분치 않았던 것이 아쉬웠다.

2) 비쥬얼커피 대구 남구 성당로18길 45-8



대구가톨릭대학교 근처의 작은 핸드드립 커피숍이다. 다양한 종류의 원두가 있고 커피에 열정적인 사장님께서 취향에 맞춰 추천도 해주신다. 이번엔 산미가 있는 에티오피아 코케 허니(ice)와 에티오피아 첼바G1 그리고 바디감이 있는 케냐AA를 마셔보았다. 차갑게 마신 커피의 원두는 우리가 로스팅했던 것보다는 로스팅 시간이 짧은 것을 사용했고 향을 더 잘 느끼도록 흔들어 거품을 만들어주셔서 특유의 산미와 독특한 향을 경험할 수 있었다. 특별히 정드립으로 내려주신 진한 커피도 마셔보았다.



페어플레이

담당 교수: 송권호(세포생물학)
참여 학생: 김보현, 박지원, 송지현



첫 수업은 쌀쌀했던 날씨가 조금 풀린 3월 29일에 두류공원에서 진행되었다. 첫 수업이니만큼 모두가 해봤고 부담 없는 종목으로 하기로 했고 토의 결과 배드민턴으로 정해졌다. 처음 10분은 가볍게 랠리를 이어가며 몸을 풀고 2:2 복식으로 경기를 진행하였다. 모든 사람이 경기에 참여하는 복식을 하다 보니 다들 점점 지쳐가서 개인전으로 변경하였다. 개인전부터는 승점제를 도입하여 점수가 제일 높은 사람이 저녁 메뉴를 정하기로 하고 1라운드에서 이기면 3점, 2라운드에서는 이기면 5점을 얻는 것을 규칙으로 정했다. 각 라운드는 토너먼트 형식으로 진행되었고 교수님께서 실력이 제일 좋으셔서 핸디캡으로 아웃이 없고 무조건 쳐야하는 것으로 하겠다고 하셨다. 1라운드를 진행한 결과 송지현이 6점으로 1등을 하였고 그 다음으로 교수님과 김보현이 3점, 박지원이 0점을 기록했다. 잠시 음료를 마시며 쉬는 시간을 가지고 재개한 2라운드에서 김보현이 추가로 2승을 거두며 13점으로 1등을 하였다. 배드민턴을 안 해본 사람은 없지만 모두가 오랜만에 배드민턴을 쳐봤는데 생각보다 더 많이 몸을 움직이는 운동이라는 걸 깨닫는 데는 오래 걸리지 않았다. 각 라운드의 끝에는 실수가 처음보다 많이 나왔고 다음날에는 모두가 근육통을 호소했다. 어렸을 때는 배드민턴이 이렇게 많이 운동이 되는 종목이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는데 이번 수업을 통해서 앞으로 산책 외에 할 운동으로 배드민턴도 적당할 것 같다고 느꼈다.



의료인문테마스쿨 페어플레이 2회차에서는 두류역에 있는 나이스 볼링센터에서 수업을 진행하였다. 먼저 개인별로 볼링과 익숙해지는 시간을 가지고, 이후 점수에 따라서 팀을 나누어 경쟁하는 방식으로 볼링을 즐겼다. 볼링을 선택하게 된 이유는 접하기 쉬운 운동이라는 이유도 있었지만, 볼링공을 굴리는 과정에서 전신의 근육을 사용하게 되므로 평소 오래 앉아있어 전신의 근력을 키우기 어려운 의과대학 학생들에게 적합한 운동이라고 생각했었기 때문이다. 거리를 고려하여 정확한 방향으로 공을 던지는 연습을 하며, 집중력 또한 기를 수 있는 운동이라고 생각하여 볼링을 고르게 되었다. 접하기 쉽고 재미까지 있는 운동이라 그런지 이번 수업에서 볼링을 처음 쳐본 사람은 나뿐이었다. 처음에 자세를 배울 땐 볼링공이 너무 무겁고 공이 원하는 방향으로 향하지 않아서 어려움을 많이 겪어 크게 재미를 느끼지 못했다. 하지만 수업을 진행하고 자세를 배워갈수록 점점 정확도가 올라가며 마침내 스트라이크도 성공하며 성취감을 느낄 수 있었고, 내 결과가 좋지 않게 나와도 다른 사람의 결과를 내 일처럼 축하해주는, 진정한 스포츠 정신을 키울 수 있는 시간이었다.

또한, 팀을 짜서 경쟁하는 것이 처음에는 내가 볼링을 너무 못 쳐서 같은 팀에게 미안함도 느끼고 위축되었지만 조금 못 쳐도 아낌없이 격려를 해주시는 교수님과 팀원들을 보면서 자신감을 얻었고, 다른 팀의 득점도 응원해주는 건강한 경쟁을 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다.



의료인문테마스쿨 페어플레이의 세 번째 수업시간은 보드게임을 해보기로 계획하였다. 여러 가지 보드게임을 해보기 위하여 시내에 있는 보드게임카페를 찾았는데, 평소에 친구들과 자주 찾던 보드게임카페지만 수업을 위해 방문했더니 색다른 기분이 들었다. 총 4가지의 게임을 해보았다. 첫 번째, '루미큐브'는 간단하고 쉬운 규칙 속에서도 집중력과 순발력이 필요한 흥미진진한 게임이었다. 이어지는 역전과 반전 속에 두 번의 게임이 각기 다른 승자로 끝이 났다.

우리가 선택한 두 번째 게임은 '스플렌더'로, 평소에도 친구들 사이에서 인기가 많기로 소문이 자자하여 기대하였다. '스플렌더'는 초심자인 교수님과 나에게는 규칙도 생소하고 어려워서 처음엔 적응하기 어려웠지만, 점차 적응해가면서 앞서 했던 '루미큐브'처럼 진지하고 긴장감 있는 분위기 속에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게임을 이어나갔다. 두 번의 게임 끝에 결과는 놀랍게도 처음 게임을 해보는 교수님과 내가 각각 영문도 모른 채 승리하며 우리에게 웃음을 안겨주었다.

세 번째 게임은 '스파이폴'이라는 게임으로, 일명 '라이어 게임'과 비슷한 룰을 가진 게임이었는데 연기를 하며 서로 속고 속이고, 누구를 믿어야 할지 모르는 분위기 속에서 즐겁게 게임을 할 수 있었다. 상황에 맞춰 연기하며 동기들과도 교수님과도 좀 더 가까운 분위기를 형성할 수 있었던 것 같다.



마지막 게임은 각자 그림을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여 알아맞히는 스피드 게임이었는데, 이 게임은 승패와 상관없이 서로의 그림을 보고 즐겁게 웃을 수 있는 시간이 되어 기분 좋게 게임을 마무리할 수 있었던 것 같다.

스포츠 경기도, 거창한 규칙을 가진 게임도 아닌, 어떻게 보면 단순하고 유치해 보일 수도 있는 보드게임이지만, 자칫하면 가장 금방 감정이 상할 수도 있기 마련인데, 우리는 서로 자존심을 내려놓고 유쾌하게 승패를 받아들이면서 우리의 마음속에는 승패의 결과보다 즐거웠던 시간 자체가 남을 수 있게 된 것 같다. 규칙을 잘 모르면 서로 알려주기도 하면서, 그리고 우리만의 규칙을 함께 정하기도 하면서, 사소해 보이지만 '페어플레이'에서 정말 필요한 공존과 소통, 합의의 태도를 배우게 된 시간이었다. 의료인문테마스쿨 수업을 통해 치열한 경쟁의 학업에서 벗어나 편안하고 즐거운 분위기 속에서 여유를 되찾고, 동기들, 그리고 교수님과 많은 추억을 쌓을 수 있었던 것 같다.

자연재해

담당 교수: 배한준(순환기내과학)
참여 학생: 권세현, 박수진, 이송희

의과대학을 다니면서 자연재해라는 주제로 무언가를 찾아보고 글을 써볼 줄은 몰랐다. 주제가 자연재해인 만큼 어떤 활동을 해보게 될지 많이 고민해보았다. 책을 읽고 독후감을 써볼까, 직접 박물관을 가볼까, 영화를 볼까. 우리는 긴 고민 끝에 다큐멘터리와 영화를 보고, 직접 화산 만들기 활동을 계획하였다. 이번 활동을 통해 사회적·환경적 문제에 훨씬 더 많은 관심을 갖게 되는 계기가 되었고, 항상 똑같은 과목만 공부하는 우리에게 신선한 바람과 같은 시간이었다.

첫째날

자연재해 관련 다큐멘터리는 아니었지만, 해양 오염과 관련된 재미있는 다큐멘터리가 넷플릭스에 있어서 함께 보게 되었다. 2021년에 만들어진 다큐멘터리로, 대량 수산업 활동이 어떻게 해양 생태계에 영향을 주고 있는지 시청자들을 일깨워 줌과 동시에 무분별한 어류포획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다큐멘터리는 해양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환경적인 문제들 (플라스틱 오염, ghost net, 과도 포획)을 거론한다. 그 중, 어업을 집어서 '지속가능한 어업'이란 없다는 것을 강조하며, 플라스틱 운동에는 유난히 열과 성을 다하면서 정작 무분별한 어업 활동에 대해서는 눈을 감는 많은 해양 생태계 보호 단체들을 신랄하게 비판한다. 실제로 인간이 버리는 플라스틱보다 바다에 버려지는 그물들이 해양 생태계에 만배 가까이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제시한다. 이 안에 단체들과 대형 수산업 회사 간의 비리를 차례차례 짚어가며 보통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는 사실들을 자세히 교정하여 준다.

인스타그램을 들어가면 요즘 스타벅스 빨대에 대한 불평이 담긴 글을 많이 목격할 수 있다. 가정통신문을 씹는 것 같다, 음료에 오래 놔두면 휘발유 냄새가 난다 등.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타벅스는 종이빨대를 끝까지 고수하고 있고, 다른 대형 커피점들도 스타벅스를 본보기로 슬슬 종이빨대를 도입하고 있다. 사실 플라스틱이 분명히 해양 생태계에 안 좋은 영향을 끼치고 있고, 미세 플라스틱은 우리가 먹는 음식에도 심상치 않은 횟수로 등장하고 있는 건 맞다. 하지만 플라스틱 오염문제보다 더 심각하게 주목해야 할 문제는 따로 있고, 소비자들은 현명한 소비를 위해 무작정 환경보호단체의 'ocean-friendly' 마크를 믿을 게 아니라 항상 비판적인 시각에서 모든 것을 바라볼 필요가 있다. 우리에게 이번 다큐멘터리 시청은 평상시에는 얻지 못했을 신선한 지식을 얻고 해양을 위한 좀 더 나은 소비를 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였다.

둘째날

둘째날은 간단한 화산 폭발 워터볼 만들기로 하였는데, 만들기에 앞서 화산 폭발과 관련된 영화 '단테스 피크'를 시청하였다.

단테스 피크는 화산이 폭발하면서 주인공 해리가 레이첼과 그녀의 두 아이와 함께 살아남는 이야기의 영화이다. 1997년도 영화임에도 마그마가 터져나오고 재가 날리는 화산 폭발 장면이 꽤 리얼해서 나름 재미있게 시청하였다. 우리 모두 가장 인상 깊은 장면으로 할머니 루소가 모두를 살리기 위해 희생한 장면과 주인공들이 죽은 줄 알고 있던 중, 갑자기 전보가 켜지며 주인공이 살아있다는 신호가 오고 모두가 환호성을 지르는 장면을 꼽았다. 옛날 영화이지만 그 옛날 영화 느낌에 보는 맛이 있으니 추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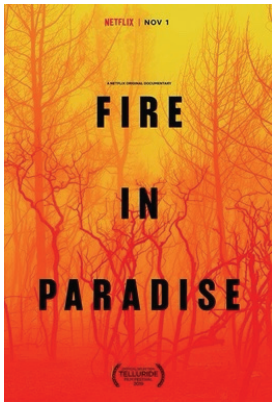




화산 폭발 워터볼은 기름이 물보다 밀도가 낮아서 물 위에 뜨려는 성질을 이용한 것이다. 그래서 옆의 사진처럼 뒤집어 놓으면 기름방울들이 위로 뜨면서 화산 모형 안으로 들어가게 되고, 다 들어갔을 때 뒤집으면 마치 화산이 폭발하듯 기름방울들이 위로 쏟아져 나온다. 간단한 원리지만 마치 화산이 폭발하듯 쏟아져 나오는 모습을 볼 때면 감탄하게 된다.

셋째날

산불과 관련된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그 날, 패러다이스 (Fire in Paradise)'를 시청하였다. '그 날, 패러다이스'는 2018년 11월 8일, 캘리포니아에서 발생한 최악의 산불인 '캠프파이어'에 대해 다루고 있는 다큐멘터리이다.





'캠프파이어'로 인해 최소 85명의 사망자와 228명의 실종자가 발생하였으며 4일 동안 지속된 산불은 약 800km^{2}의 면적을 태웠다. 다큐멘터리는 발생 당시 현장의 모습과 생존자들의 인터뷰를 번갈아 보여주며 당시 상황이 얼마나 긴박했으며 자연 앞에서 인간이 얼마나 무기력하지 생생하게 보여주었다. 생존자 중 어떤 사람은 어쩔 수 없이 반려동물을 두고 떠날 수 밖에 없었고, 어떤 사람은 가족사진을 하나도 챙기지 못하고

떠나게 되어 슬퍼하였다. 다큐멘터리를 시청한 후에 우리가 만약 산불로 인해 긴박하게 집을 떠나야 하는 상황이라면 어떤 물건을 가장 먼저 챙길 것인지에 대한 각자의 의견을 나눠보았다. 권세현은 삶의 터전을 떠나 새로운 곳에 정착하려면 돈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돈을 가장 먼저 챙기겠다고 하였다. 박수진은 가족사진을 챙기지 못해 슬퍼하던 사람이 기억에 남는다며 가족사진을 먼저 챙기겠다고 하였다. 이송희는 다른 사람들과 생존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휴대폰을 먼저 챙기겠다고 하였다.



해마다 다양한 자연재해가 발생하고 인간은 번번이 자연재해 앞에서 한없이 작아지곤 한다. 의료인문테마스쿨 '자연재해' 수업을 통해 이처럼 인간에게 수많은 피해를 끼친 여러 재해에 대해 알아볼 수 있었고 자연 앞에서 초라한 인간으로서 우리는 어떻게 조금이나마 상황을 헤쳐나갈 수 있을지 토의를 통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

시각장애인 음악가들
("신은 내게 눈 대신 목소리를 줬죠")

담당 교수: 김숙영(안과학)
참여 학생: 김상찬, 김영관, 신진철



시각장애인은 세상을 바라보고 이해할 수 있는 시력은 없지만, 세상의 소리에 귀 기울일 수 있는 발달된 청력이 있다. 또한, 이들 중 일부는 뛰어난 음악적 재능을 소유하고 있어 장애를 극복하고 음악사에 한 획을 긋기도 한다. 이번 의료인문테마스쿨에서는 이처럼 시각장애를 극복한 음악가들을 알아보고, 음악을 감상하는 시간을 가졌다. 수업 전 해당 음악가의 시력 상실 원인 질환, 생애, 음악을 조사하여 교수님께 질환에 대한 첨언을 듣고 생애를 살펴본 후 마무리로 음악을 감상하였다.





처음 3번의 수업에서는 유명세가 있는 사람을 위주로 진행되었다. 스티비 원더, 안드레아 보첼리, 레이 찰스가 이에 해당한다. 미숙아 망막증, 선천성 녹내장에 대한 교수님의 설명을 듣고, 세 사람의 범상치 않은 생애, 수많은 수상 경력을 조사한 내용을 공유하였다. 여러 음악을 감상했지만, 스티비 원더가 사랑하는 딸을 위해서 작곡한 'Isn't she lovely', 안드레아 보첼리가 단신으로 두오모 대성당 앞에 서서 부른 "Amazing Grace' 우리나라 CF에서도 들을 수 있었던 노래인 레이 찰스의 "Hit the road jack'이 기억에 남는다.



다음으로는 다큐영화 '뷰티플 마인드'를 보는 시간을 가졌다. '뷰티플 마인드'는 다양한 장애를 가진 아이들로 구성된 오케스트라에 대한 영화이다. 장애를 가진 아이들이 겪게 되는 사회적인 시선과 불편함에 대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고, 노력으로 장애를 뛰어넘어 서로 하모니를 맞춰 나가는 과정이 정말 인상 깊었다.

마지막으로 시각장애를 가진 피아니스트 4명의 독주회를 듣는 시간을 가졌다. 모두 앞이 보이지 않는다고 생각되지 않을 정도로 수준 높은 연주를 보여주었다. 그 중, 한 명이 현 21대 국회의원 김예지였다. 1급 시각장애에 해당할 정도로 앞이 보이지 않지만, 미국 위스콘신 대학교 음대에서 박사 학위를 받고 우리나라에서 정치인으로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다. 일반인에게도 쉽지 않은 과정일 텐데 본인의 뜻을 이루기 위해 얼마나 큰 노력을 하셨을지 상상도 되지 않았다.

시각장애인 음악가라는 주제로 자료를 조사하고, 수업을 진행하면서 이전에 무의식적으로 장애인의 능력에 대한 편견을 가졌던 것이 부끄러웠다. 장애가 있다고 할 수 없는 일은 없었다. 오히려 생각지 못한 부분에서 재능을 발휘해 우리를 놀라게 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부족한 부분을 조금씩 배려하는 자세를 갖고 함께 어우러져 살아가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자.

와인과 만남

담당 교수: 정진용(마취통증의학), 이소영(마취통증의학)
참여 학생: 김재훈, 이상민, 손명아

의료인문테마스쿨 '와인과 만남' 은 매주 다른 교수님을 초청해서 프랑스, 이탈리아, 신흥국(호주, 미국, 칠레 등)의 와인에 대한 역사 및 지역에 따른 차이를 이해하고 직접 시음과 향을 음미해보며 와인을 차이를 이해하고 교양을 넓히는 기회를 교수님과 함께 가지게 되었다.

첫 번째 만남에서는 우리 학교 신경외과 김영돈 교수님과 함께 프랑스 와인을 접할 수 있는 자리를 가졌다. 가장 많이 접할 수 있는 프랑스 와인 중 교수님들께서 가져오신 2가지 종류의 피노누아, 카베르네 쇼비뇽, 말벡 등 많은 품종의 와인을 접할 수 있었다. 교수님들과 함께 와인에 대해서 얘기해보고, 와인 마시는 방법, 스월링 등 평소에 와인에 대해서 궁금했던 것들을 교수님께 여쭤볼 수 있었다. 뿐만 아니라 의학과 2학년 때는 수업 외에 교수님을 개인적으로 뵙기 힘든데, 이번 기회로 김영돈 교수님과 함께 와인에 관해 얘기도 해보고, 병원 이야기도 들어보는 특별한 기회를 가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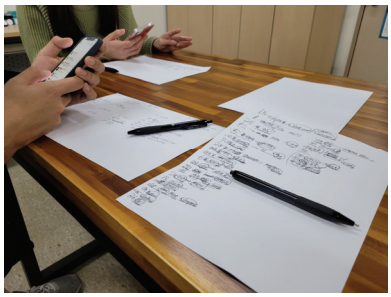




두 번째 만남은 교수님들과 이탈리아 와인에 관하여 간략한 설명을 듣고 교수님들과 와인과 의사생활에 관하여 두 번째 시간을 만촌동 앙쥬 레스토랑에서 저녁을 가지게 되었다. 이번에는 상 줄리앙에서 나온 프랑스 보르도 카베르네 소비뇽 레드와인 chateau leoville las cases: grand vin du leoville(2016) medoc과 이탈리아산 레드와인 brunello di montalclino(2016), castello della sela cervaro della sela라는 antinori 명가의 샤르도네 이탈리아 중부의 화이트와인, 독일 nahe에서온 달면서 산도가 강한 화이트와인인 Donnhoff: norheimer kirschheck Riesling Spatlese(2014) 4가지 와인을 테이스팅하고 살라미와 감바스, 각종 음식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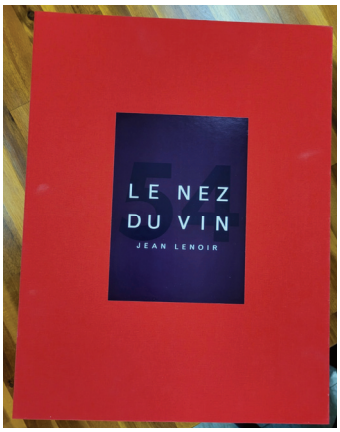


이번 시간에는 와인에 대하여 이야기를 나눠주실 조명래 정형외과 교수님도 함께하셔서 와인 보관 및 관련 지식을 함께 공유해주시고 이소영 교수님께서 와인을 오픈하는 방법도 상세히 가르쳐 주시며 정진용 교수님께서 와인에 대하여 첨언을 해주셔서 듣기 힘든 와인에 관하여 조금 더 깊은 배경지식을 쌓을 수 있었다. 코로나가 점점 후기로 가는 상황에 다음 해외여행을 갈 기회가 있다면 이탈리아에 가서 이번 교수님들에게 배웠던 다양한 와인 지식과 함께 와인 선정에 대한 안목을 기르고 와인을 직접 즐기면서 이번 의료인문테마스쿨에서 배웠던 와인 지식에 시너지효과를 느끼며 교양을 조금 더 알차게 할 수 있지 않을까 행복한 고민을 하게 된다.



세 번째 의료인문테마스쿨 '와인과 만남' 마지막 시간에는, 이소영 교수님께서 가져와 주신 '르네뒤뱅' 아로마 키트로 우리는 54가지의 향을 유추해 보았다. 너무 어려워서 별로 맞추지는 못했지만 어디서나 할 수 없는 정말 좋은 경험이었다. 6시부터는 미스돈 생삼겹살 집에서 맛있는 삼겹살과 와인을 즐겼다. 오늘은 우리들병원 박찬홍 원장님이 자리를 함께해 주셨고 병원장으로서의 병원 경영과 의사로서의 마인드에 대해 좋은 말씀을 해주셨다. 와인은 피노누아, 까르베네 소비뇽을 마셨는데 첫번째 시간에 기억했던 피노누아만의 맛을 기억해서 와인과 만남 수업 덕분에 와인을 조금 더 알게 된 것 같아 뜻깊은 순간이었다. 평소 접해보지 못했던 와인을 경험하게 해주신 정진용 교수님, 이소영 교수님 그리고 의료인문테마스쿨 감사합니다.







골린이들의 골프여행

담당 교수: 이근우(안과학)
참여 학생: 고덕형, 문규봉, 최혁진

#소개



우리는 '골린이들의 골프여행' 조이며, 골프의 골자도 모르는 골린이들이 이근우 교수님을 만나 골프에 대해서 익숙해지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우리는 기초지식, 교수님의 이야기, 스크린 골프장 경험 순으로 진행하였다. 의료인문테마스쿨 수업 동안 여러 활동을 즐겁게 할 수 있었다.

#골프 기초상식

골프란, 다수의 홀이 갖춰진 경기장에서 정지된 공을 골프 클럽으로 쳐서 홀컵에 넣는 경기이다. 홀컵에 들어가기까지 시도한 타수가 적은 플레이어가 승리하는 것을 규칙으로 한다.

골프 스코어에 대해서 알아보자.

· 앨버트로스(Albatross) : 기준 타수 –3
· 이글(eagle) : 기준 타수 –2
· 버디(birdie) : 기준 타수 –1
· 파(par) : 기준 타수(해당 홀의 목표 타수)로 공을 넣었을 때
· 보기(bogey) : 기준 타수 +1
· 더블 보기(double bogey) : 기준 타수 +2



#골프의 역사

어원

골프(GOLF)는 골프채를 뜻하는 클럽(club) 또는 방망이(bat)를 뜻하는 네덜란드어 콜프(kolf)에서 비롯되었다. 최초의 언급은 1457년 스코틀랜드 제임스 2세 왕이 골프를 금지하는 문서를 작성하면서 처음 등장했다. 사람들이 활쏘기를 등한시하고, 골프를 치는 데 정신이 팔렸기 때문에 작성되었다고 한다.

발전

1744년 에든버러 골프 협회가 창설되어 최초의 골프 규칙을 만들고 적용해 근대 골프의 모습을 갖추었다. 1860년 영국에서 첫 번째 선수권 대회가 열렸는데, 이 대회가 현재 4대 메이저 골프대회 중 하나인 디 오픈(The open)의 시초가 되었다. 이후, 유럽, 미국, 아시아로 전수되면서 지난 1세기 동안 발전해왔다. 유럽에서 시작된 놀이가 스코틀랜드에서 골프라는 이름으로 완성되었고, 다시 전 세계로 퍼지면서 오늘날 6,000만 명이 일상에서 즐기는 스포츠가 되었다.

#골린이들도 이름은 아는 타이거우즈

여러분들은 타이거우즈에 대해서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있나요? 골프 황제? 희대의 스캔들? 스포츠 스타 수입 1위? 우리가 시청한 타이거우즈 관련 영상과 이근우 교수님의 코멘트를 토대로 타이거 우즈에 대해 알아보자.



그는 1975년생으로, 미국 캘리포니아주 오렌지카운티에서 야구선수 출신의 흑인 아버지와 태국인 어머니 사이에서 외동아들로 태어났다. 골프는 4살부터 시작했다고 한다. 어린 나이부터 그의 천재성은 드러나는데, 8살 때 80타를 치고, 15세에 US 주니어 아마추어 대회에서 최연소 우승을 차지하면서 화려한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며 96년에 PGA에 입회하여 골프 프로의 길로 들어서게 된다.

그는 나이키와의 관계도 빼놓을 수 없는데, 나이키는 90년대 조던 마케팅으로 대성공을 이룬 것을 바탕으로, 골프에도 진출하기 위해서 96년 타이거우즈에게 그 당시 파격적인 5년 4,000만 달러(420억 원)을 제시하며 스폰쉽을 맺기 시작한다. 나이키의 이 계약은 대성공이었고, 이로 인해 '타이거우즈 효과'를 제대로 누리게 된다. 2009년 스캔들에도 불구하고 나이키는 그와 스폰서를 연장 계약하며, 벼랑 끝에 있던 그를 지켜주는 의리를 보여주게 된다.

그는 스캔들 이후에도 복귀를 위해 훈련에 전념하여 다시 필드로 돌아오게 되었고, 돌아와서도 여러 개의 타이틀을 획득하면서 명실상부 자신이 골프 황제임을 세계에 알렸다. 이후, 나이에 따른 기량 하락으로 순위는 떨어졌지만, 간간히 우승을 보이며 자신의 클래스를 보였으나, 2021년 2월에 교통사고 이후로 사실상 은퇴를 선언했다.

#스크린 골프

윤숙현 교수님, 이근우 교수님과 함께 '골프존파크 대명청보스크린점'을 방문했다. 우리끼리 갔으면 아무것도 몰랐을 텐데, 교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하나 알려주시면서 직접 자세도 잡아주시고, 스윙 방향도 잡아주시면서 스크린 골프의 시원함을 느낄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었다.



#우리들의 소감

최혁진

골프는 취미로 한 번쯤 접해보고 싶은 스포츠일 것이다. 계기가 있지 않으면 시작하기 어려운데 의료인문테마스쿨을 통해 알게 되는 계기가 되어 뜻깊었다. 교수님께서 처음 골프를 하는 사람도 이해할 수 있게 영상과 쉬운 설명으로 이해시켜 주셔서 골프의 전반적인 내용을 알 수 있었고, 골프채로 기본자세, 스윙하는 방법을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알려주셔서 쉽게 배울 수 있었다. 특히, 시험이 끝나고 골프채로 스윙할 때의 시원함은 짜릿했다. 교수님께서 즐거운 학교 이야기도 해주시고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조언도 많이 해주셔서 좋은 추억이 되었다.

문규봉

골프를 한 번도 경험하지 않았었다. 살면서 처음 접해보는 것을 했을 때 자신에게 잘 맞는다면 기분 좋고 오래 기억에 남는다. 이 경험을 학교에서 수업으로 접하여 이근우 교수님, 동기들과 함께하게 되어 의과대학생으로서 뜻깊은 시간이 되었다. 예전에 운전하는 법을 아버지께 배운 게 둘만의 소중한 추억이 되는 것처럼 이 수업도 각자의 소중한 추억이 될 것이다.

고덕형

이번 학기 의료인문테마스쿨 목록에 '골린이들의 골프여행'이 보이자마자, 단 1초의 고민도 없이 바로 신청하게 되었다. 홀린 듯 신청한 이 강의는 나에게 있어서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감도 오지 않던 골프에 대해 좋은 머릿돌이 될 수 있는 강의였고, 또한 이근우 교수님과 만남을 통해서 앞으로의 인생에 대해서도 많은 배움을 얻을 수 있었던 강의였다.

큐레이터 되기
: Be my own Curator

담당 교수: 이숙희(응급의학)
참여 학생: 김민규, 송준현, 이승훈

김민규

우리의 첫 번째 활동은 대구미술관 방문이었다. 우리가 본 전시는 '나를 만나는 계절'이라는 대구미술관 소장품 기획전이었다. 조각 작품들을 볼 때는 사실 난해한 작품이 많아서 이해하기 어려웠지만, 투수가 와인드업하는 모습을 조각한 작품 앞에서 야구를 좋아하는 승훈이가 같은 동작을 취하는 것을 보고 다 함께 웃었던 것이 기억에 남는다. 또한, 개인적으로 미디어아트를 좋아하는 편인데, 파도의 거친 이미지와 함께 절의 범종 소리를 담은 동영상 앞에서 한참 종소리를 들었던 것도 기억에 남는다.

우리 조 활동이 좋았던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내가 의외로 '미술작품 보면서 이건 어떤 의미일까?' 고민하는 것을 좋아한다는 걸 깨달았다. 그리고 난 지금껏 누군가와 미술관에 가면 함께 작품을 감상했었는데, 우리는 전시장에 입장한 후, 각자 흩어져 작품을 보는 것이 다들 진심으로 작품을 감상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멋있다고 생각했다. 여담으로 이숙희 교수님께선 사진을 정말 잘 찍으신다. 내가 작품을 감상하고 있으면 그 모습을 카메라에 담아서 보내주셨는데, 이건 정말 몇 달 동안의 프로필 사진감이었다. 교수님 너무 멋져요!

수업 전에는 학기 중에 어디 놀러 나가서 시간을 보내는 것을 잘하지 못했다. 매번 놀지 공부할지 고민하다가 결국 공부도 못하고 제대로 놀지도 못하게 되는 날이 종종 있었다. 의료인문테마스쿨 활동이 그런 나를 끌고 나가서 힐링시켜준 것 같아 정말 감사하다.

송준현

평소에 사진이나 박물관에 관심이 없는 사람이라도 퓰리처 사진전은 한 번쯤은 어디선가 들어봤을 법하다. 그만큼 퓰리처는 저널리즘에서 그 영향력과 명예가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모든 사진작가나 기자들의 꿈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마침 부산에서 퓰리처 사진전을 한다니 이것만큼 주제에 부합한 활동은 없다고 생각하며 우리는 부산으로 향했다.

아쉽게도 사진전 내부에서는 촬영이 금지라 작품들의 사진은 찍지 못했다. 그러나 그 인상만큼은 강렬했다. 퓰리처의 상을 받은 명성답게 모든 사진 하나하나는 고유의 이야기를 담고 있었다. 개인마다 그 정도는 다르겠지만, 사진전에 전시된 사진은 모두 누군가에게 작든 크든 어떤 영향을 준 작품들이다. 여기 있는 사진들에 의해 어떤 정부나 나라는 제도나 사회 관념에 변화가 나타났고, 아무도 모르고 있었던 상황에 세계적인

관심과 도움을 줄 수 있었다. 또한, 역사에 있어서 한 획을 그은 사건의 순간을 담은 작품들도 있었다. 그만큼 퓰리처 사진전은 감명 깊고 인상적이었다.

나는 예전부터 퓰리처를 알고 있었지만 어디까지나 뉴스나 인터넷에서 접했을 뿐이지 바쁜 일상과 학업 때문에 사진전을 갈 여유가 없었다. 그래도 언젠가 여유와 기회가 있으면 직접 사진전을 가보고 싶은 마음은 계속 있었다. 그러다가 마침 이번 의료인문테마스쿨의 수업 주제와도 잘 맞고, 가까운 부산에서 퓰리처 사진전을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이건 나를 위한 주제다!'라고 생각했고 실제로도 매우 만족스러운 시간을 보냈다. 퓰리처의 사진들이 누군가에게 작든 크든 어떤 영향을 준 작품들인 것처럼 의료인문테마스쿨은 누군가에게는 그냥 수업 대신 노는 시간, 하기 싫은 시간, 혹은 시켜서 해야 하는 시간일 수 있다. 그러나 나에게 의료인문테마스쿨은 재밌고, 인상 깊고, 평소에 가고 싶었던 사진전도 갈 수 있었던 유익한 경험이었다. 모두에게 똑같이 주어지는 의료인문테마스쿨이면 좋은 교수님과 동기들과 즐겁게 보내는 것이 결국 승자이지 않을까 싶다.



이승훈



어느덧 시간이 지나 의료인문테마스쿨의 마지막 수업이 다가왔다. 마무리를 장식할 장소를 모색하던 중 우연히 야구장 얘기가 나오게 되었고, 우리는 5월 22일에 삼성라이온즈의 홈구장인 라이온즈파크로 향하게 되었다. 1회 말부터 화끈한 홈런으로 시작한 경기는 이닝이 지나면서 삼성라이온즈의 선발투수인 백정현 선수가 점점 흔들리기 시작하다가 4회에 1점, 6회에 2점을 내주며 결국 3대2로 뒤집히게 되었다. 그러나 7회 말, 신인 이재현 선수의 역전 투런 홈런이 터지면서 역전승을 거두게 되었다. 공이 배트에 맞은 순간 우리는 약속이라도 한 듯이 단체로 자리에서 일어나 공의 행방을 지켜봤고, 공이 담장을 넘어가는 순간 다 같이 환호하며 순간의 짜릿한 감정을 만끽했다.

우리는 미술관과 사진전을 방문하면서 여러 작품을 봤고, 이전에는 겪어보지 못한 새로운 경험을 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느낀 감정들을 서로 공유했다. 이번에도 장소만 달랐을 뿐 우리는 야구라는 예술작품을 통해 역전의 기쁨을 공유한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우리는 의료인문테마스쿨 활동을 통해 단순한 작품의 감상뿐 만이 아니라 서로의 견해를 공유하며 시야를 넓힐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다. 짧은 시간에 많은 것을 배우고 경험할 수 있게 해준 수업이었던 만큼 나도 조원들의 시야를 넓히는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란다.

게임과 현대사회의 이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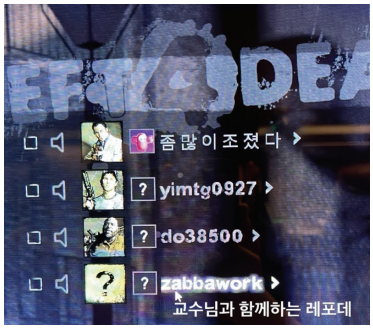
담당 교수: 윤숙현(안과학)
참여 학생: 김도영, 김상래, 임태규



첫 만남에서는 각자 삶을 살아오면서 자신의 게임사에 대한 이야기를 발표했는데 학생 세 명 모두 '카트라이더' 게임은 처음 접해봤다고 하여 신기했다. 교수님께서는 고등학교 때 카트라이더라는 게임이 출시되어 수능을 치고 나서 해보셨다고 하셨다. 향후에 다 같이 PC방을 가서 게임을 해보기로 계획을 세웠다. '게임과 현대사회의 이해'라는 수업 주제를 보고 온라인 게임만 떠올렸지만, 대화를 하고 난 후 플레이스테이션, 닌텐도, 오락실에서 했던 철권 게임 등 다양한 게임 관련 이야기도 나왔고, 실제 어렸을 때 모두가 해봤기 때문에 수업 중에 할 기회가 된다면 해보자는 계획도 세웠다. 교수님께서는 학창시절에 게임은 무조건 나쁜 인식, 공부에 방해가 된다는 인식만 있었는데 이제는 그 학생들이 성인이 되고, 부모가 되면서 절제할 수 있는 능력만 길러준다면 좋은 취미가 될 수 있다는 인식이 사회에 작게나마 불고 있다고 하셨다. 또한, 최근 게임 시장 규모가 커지고 선수들의 연봉도 상승하다 보니 게임을 가르쳐주는 학원도 생기고, 자녀가 프로게이머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부모님들도 늘고 있다. 이렇듯 현대사회에서 게임의 위상이 점점 변화하고 있는데, 앞으로 의료인문테마스쿨 수업에서 이에 대해 알아가게 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생겼다.

두 번째 시간에는 교수님과 함께 저녁을 먹으면서 현대사회에서 게임이 어떤 위치나 역할을 가지는지, 과거와 비교해서는 어떤지, 우리는 이런 변화에 따라 어떤 영향을 받았고 후대에 어떤 영향을 줄지 토론을 했다. 보통은 게임을 그저 하나의 유희, 여가시간을 보내는 활동 중 하나로 생각하거나, 갑갑한 일상의 몇 안 되는 탈출구 중 하나 정도로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물론 우리도 마찬가지였다. 하지만, 교수님과 넓은 시각에서 게임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니 단순한 재미추구를 위한 활동이 아닌, 사회의 중요한 요소 중 하나라고 생각했다. 게임의 다른 측면에 대해 깊게 알아볼 수 있어서 의미 있고 좋았던 것 같다.





게임에 대한 주제로 여러 가지 의견을 나눠본 후에 직접 같이 게임을 해보는 시간을 가졌다. 교수님과 4명이 팀이 되어 게임을 해볼 기회가 2번 있었는데, 첫 번째 시간은 4명이 힘을 합쳐 좀비의 추격에서 탈출하는 게임인 '레프트4데드', 두 번째 시간은 4명이 한 팀이 되어 서로를 도와주며 1등을 차지하는 '카트라이더'를 해보았다. 모두가 쉽게 즐길 수 있고, 협력할 수 있는 게임을 원했는데 아주 적절했던 것 같다. '레프트4데드'게임도 마지막 스테이지가 어려웠지만 3번의 도전 끝에 성공하는 짜릿함을 맛볼 수 있었고, 카트라이더 역시 다른 팀원들이 너무 실력이 좋아 패배의 쓴맛을 보았고, 마지막에 기적적으로 한 번 이겨 통쾌함을 느꼈다. 마지막에 느낀 승리의 기쁨 역시 너무 좋았다.

e-스포츠라고 불릴 만큼 게임은 사람들과 협력을 통해 어려움을 헤쳐나가는 과정을 느낄 수 있는 좋은 문화로 거듭났다. 교수님과 함께할 수 있어서 굉장히 의미 있는 시간이었고, 감회가 새로웠다.

대구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DAEGU CATHOLIC UNIVERSITY SCHOOL OF MEDICINE

MEMO

대구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DAEGU CATHOLIC UNIVERSITY SCHOOL OF MEDICINE

MEMO



대구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DAEGU CATHOLIC UNIVERSITY SCHOOL OF MEDICINE